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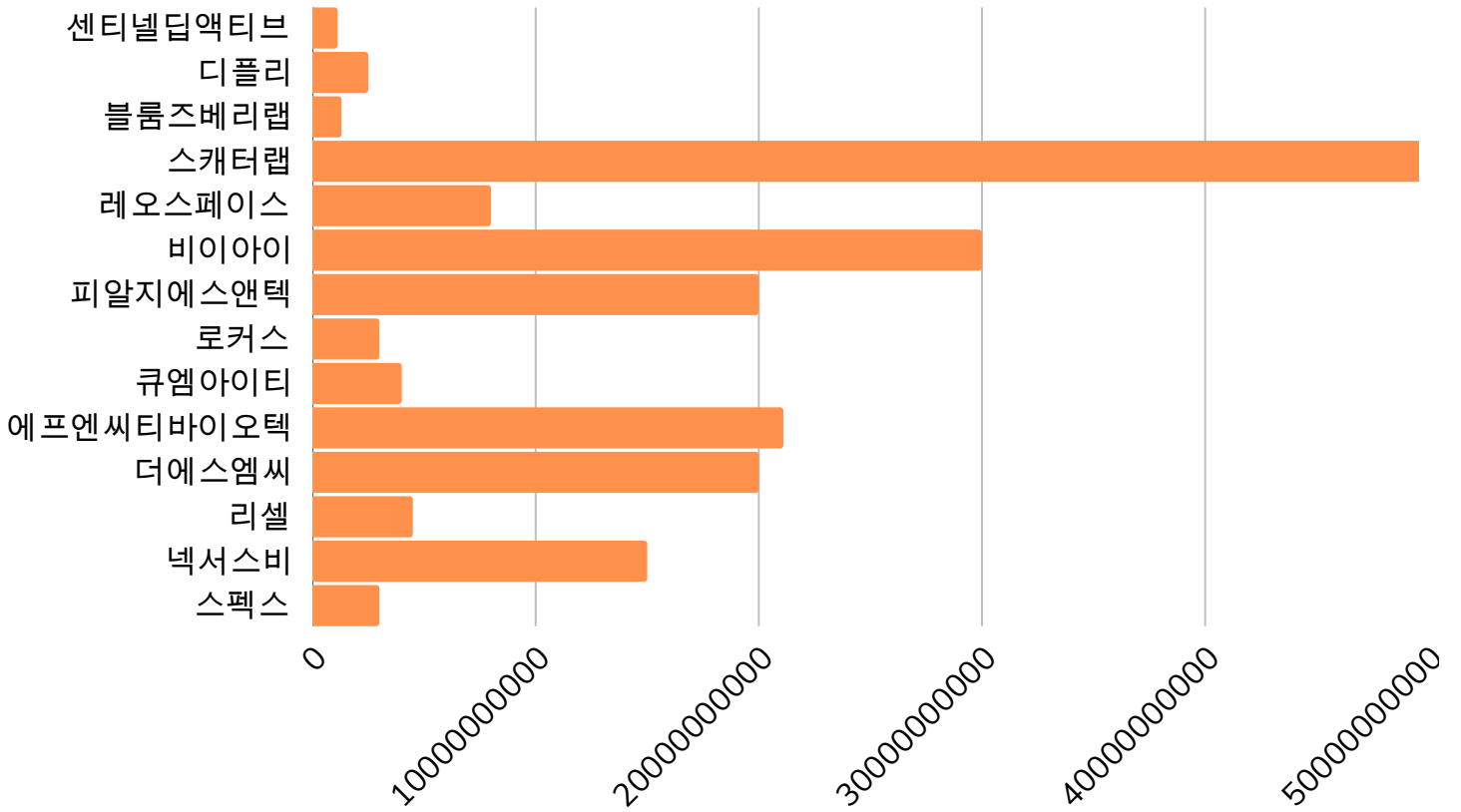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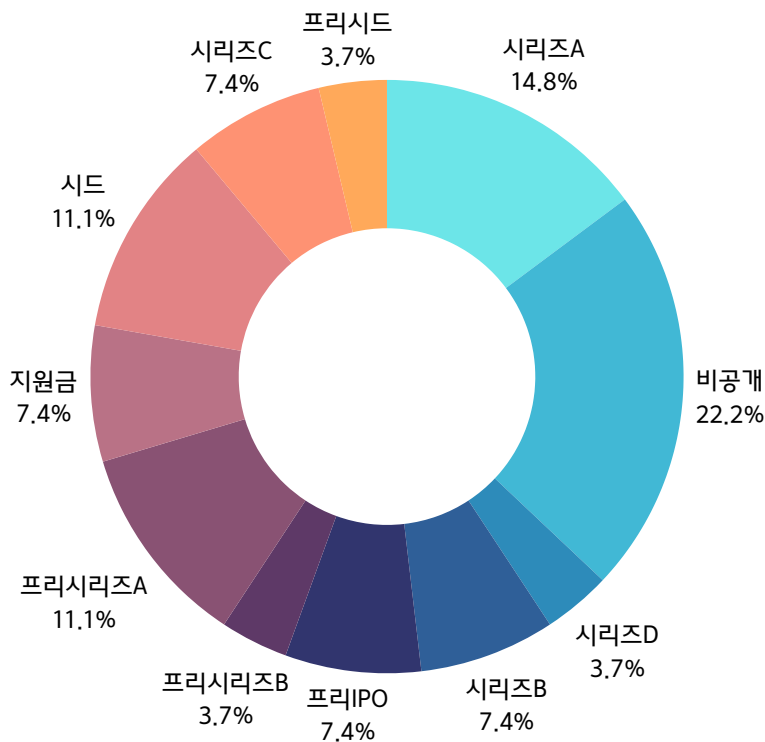
2026년 6월 15-19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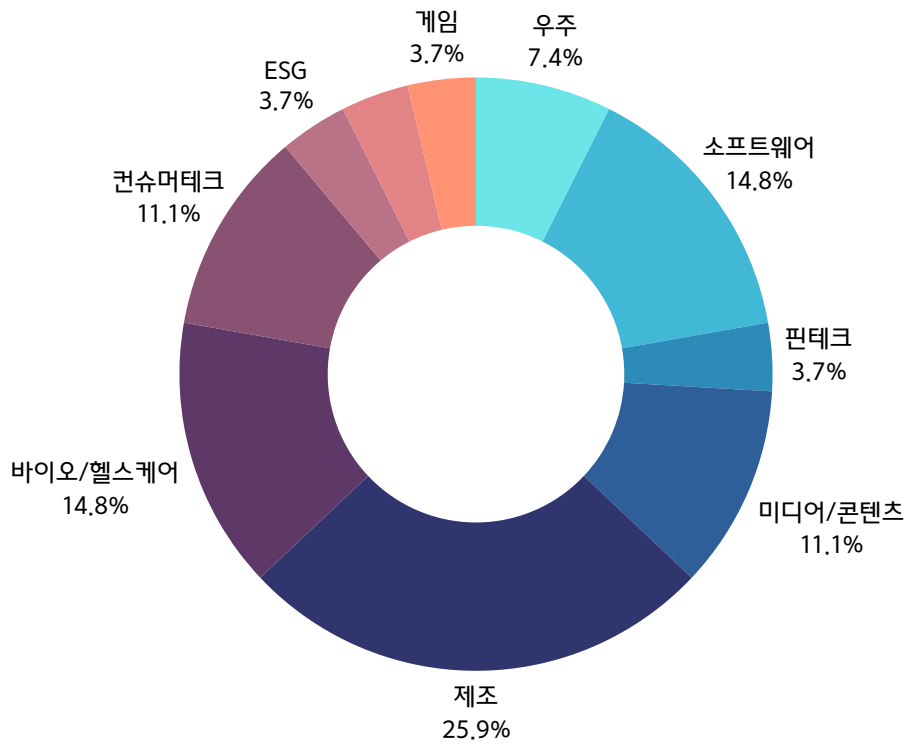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6월 15~19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27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4개 기업이 1,835억 3,000만원 투자를 유치했다.

##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보면 시리즈A가 14.8%로 가장 높았지만 프리시리즈A와 시드가 각각 11.1%, 프리IPO와 시리즈B, 시리즈C도 각각 7.4%를 기록하는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 제조가 25.9%를 기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14.8%, 컨슈머테크와 미디어/콘텐츠가 11.1%를 나타냈다.

##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으로는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를 운영 중인 스캐터랩이 500억원 투자금을 끌어온 가운데 리튬메탈 배터리 기업이 비이아가 300억워너 시리즈B를, 혁신 항체 섬유화 치료제 기업인 에프앤씨티바이오텍이 211억워너 시리즈B를 기록했다.

## 센티넬딥액티브 : 11억 3,000만원

### Sentinel DeepActive

금융투자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센티넬딥액티브가 현대차증권으로부터 11억3000만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자금 유입은 센티넬딥액티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금융투자 AI '센티넬 AI'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양사는 이를 계기로 퇴직연금과 자산관리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센티넬 AI는 트랜스포머 기반 20억 파라미터 규모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개별 주식, ETF,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일일 단위로 능동적 리밸런싱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5개 자산을 운용 중이며, 2027년까지 모델을 150억 파라미터로 확장하고 투자 대상도 3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회사는 '센티넬 AI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7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학습 구조와 실시간 피드백을 탑재해 하루 한 차례 리밸런싱을 수행하며, 하락장에서도 방어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준 대표는 "AI가 단순한 의사결정 보조를 넘어 직접 자본을 운용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현대차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퇴직연금 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디플리 : 25억원 시리즈A



산업용 음향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디플리가 25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데브시스템즈벤처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과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도 함께 투자에 나섰다. 디플리가 개발한 '리슨 AI'는 사람의 귀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음향 차이를 분석해 기계 부품 품질 검사, 체결음 확인, 예지보전 등에 활용된다. 실제 양산 라인에서 99.87%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현재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와 자동차 모터 생산 라인에 적용되고 있다. 특정 발화음과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핵심 음향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언어와 장소의 제약이 적어 글로벌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회사는 최근 3년간 매출이 매년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히며, 북미 베어링 제조사와 완성차 라인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오토메이트 2026'에 참가해 북미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한다. 투자사 측은 디플리가 소리를 산업의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표준화된 음향 데이터 시장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디플리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리슨 AI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 블룸즈베리랩 : 13억원 시리즈A 브릿지



홈시네마와 극장 스크린 제조사 블룸즈베리랩이 시리즈B 라운드에 앞서 브릿지 자금을 마련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넥스트 지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마케팅과 영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블룸즈베리랩은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본격적인 시리즈B 라운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브릿지 투자가 향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스캐터랩 : 500억원 시리즈D



AI 캐릭터 채팅 애플리케이션 '제타'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이 약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SBVA,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참여했으며, 제타의 빠른 성장세가 투자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타는 이용자가 원하는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정하고 AI와 대화를 나누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가입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본 시장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서 넷플릭스를 제치고 사용시간 기준 1위를 기록했으며, 주간 이용자 수는 75만 명,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약 4시간에 달한다. 스캐터랩은 지난해 매출 26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입증했다. AI 캐릭터 채팅 시장은 10~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뽀빠의 '크랙' 등 경쟁 서비스도 해외 확장을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제타의 월간 이용자 수는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해 140만 명에 달했고, 크랙 역시 같은 기간 55만 명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윤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AI 캐릭터 채팅이 드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으며 사업 기회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레오스페이스 : 80억원 시리즈A



우주광학 전문기업 레오스페이스가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차세대 광통신 실증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에는 에이벤처스, IBK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앞서 컨택과 AP위성의 전략적 투자까지 합산하면 창업 4년 만에 누적 투자금은 100억 원에 달한다. 레오스페이스는 초소형·소형위성용 광학탐재체와 저궤도 광통신 단말기(LCT)를 개발하며, 위성 간 데이터 전송과 지상-위성 광통신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 기반 통신은 기존 전파 대비 빠른 속도와 낮은 혼선으로 대용량 우주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특히 레오스페이스는 데이터 생성 기술(광학탐재체)과 전송 기술(광통신)을 동시에 보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올해 자체 개발한 LCT의 지상 검증을 마친 뒤 궤도 실증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번 투자금은 실증 일정 단축과 기술 고도화, 해외 파트너십 확보에 집중될 계획이다. 투자사들은 레오스페이스가 두 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회사는 장기적으로 위성 간 광통신 네트워크와 우주 데이터 전송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 비이아이 : 300억원 시리즈B



리튬메탈 배터리 기업 비이아이가 시리즈B 라운드에서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모집을 마쳤다. 목표액 전액에 대한 투자 약정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억 원이 납입된 상태다. 잔여 재무적 투자자(FI) 자금은 이달 말까지 납입될 예정으로, 라운드 클로징이 임박했다. 이번 투자에는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해 사업적 시너지 확보에 힘을 보탰으며,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비이아이는 FI 투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창업 초기부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앞세운 비이아이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피알지이에스앤티 : 200억원 프리IPO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피알지이에스앤티가 2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에스벤처스가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SL인베스트먼트·BNK벤처투자·유니온투자 등 주요 벤처캐피탈이 참여했다. 회사는 미국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임상시험 확대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피알지이에스앤티가 상장 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로커스 : 30억원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가 약 2년 6개월 만에 신규 투자 30억원을 유치하며 기업가치 480억원을 인정받았다. 이번 라운드에는 IBK기업은행, DS자산운용,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지애텍벤처투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커스는 2023년 말 대규모 투자 이후 실적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부터 매출 흐름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성장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회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제작 역량 강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공개(IPO) 추진 속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VC업계는 로커스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큐엠아이티 : 40억원 프리시리즈B



스포츠테크 기업 큐엠아이티가 40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B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주도하고 네이버 D2SF가 참여했으며, 두 기관 모두 기존 투자자로서 플코의 누적 투자금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 큐엠아이티가 서비스 중인 플코는 경기 데이터, 피지컬 측정, 훈련 부하, 컨디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스포츠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지도자 1,500명과 선수 1만2,000명이 사용했다. 전북 현대, 수원 삼성, SSG 랜더스 등 주요 프로 구단이 도입한 바 있으며, 축구를 넘어 야구·농구·배구·육상으로 고객사를 확대 중이다. 이번 투자금은 스포츠 특화 AI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종목 확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연내 선수 유전체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IDP 솔루션을 선보인다. 일본 J리그와 베트남 리그 등 해외 협업도 추진하며 글로벌 스포츠 데이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에프엔씨티바이오텍 : 211억원 시리즈B



혁신 항체 기반 섬유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프엔씨티바이오텍이 시리즈 B 라운드에서 211억 원을 유치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투자에는 프리미어파트너스와 BSK 인베스트먼트가 후속 참여했고, IBK캐피탈·아주IB투자·농협은행 등 총 10개 기관이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회사는 자금을 활용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FB-101'의 전임상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후속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에프엔씨티바이오텍은 섬유화 악순환을 유도하는 'CSF3-STAT3-TGFβ 루프'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손상된 폐 조직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혁신 항체 FB-101을 개발 중이다. 동물 모델을 넘어 인체 유래 폐 오가노이드에서 유효성을 입증해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였고,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검토 및 파트너십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해 루푸스 신염 등 복합 난치성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ADC 공동개발을 통해 고형암 분야 진출도 추진한다. 에프엔씨티바이오텍은 2029년 코스닥 IPO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 더에스엠씨 : 200억원 프리IPO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가 LB인베스트먼트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국콜마 등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올해 기업공개를 목표로 조직·재무 구조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기반 콘텐츠 제작, 애드테크 고도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더에스엠씨는 최근 상장 전 마지막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클로징하며 IPO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대와 AI 활용도 증가에 따라 더에스엠씨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투자 역시 기업가치 제고와 상장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리셀 : 45억원 시리즈A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창업기업 리셀이 4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투자사가 고르게 참여해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리셀은 가볍고 유연하며 투명한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기술을 기반으로 저조도 발전,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모빌리티 전원, 영농형 태양전지 등 다양한 응용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롤투를 공정 적용이 가능해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점이 사업화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앞서 정부의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으로 18억 원의 지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투자까지 더해지며 생산체계 구축과 인력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리셀은 향후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넥서스비 : 150억원 시리즈C



원자층 박막증착(ALD) 장비 기업 넥서스비가 최근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확보하며 기술 개발과 운영 자금을 숨통을 텃다. 이번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사 안다아시아벤처스가 재참여했고, 신영증권·티인베스트먼트·플래티넘기술투자·IBK기업은행 등이 새로 합류했다. 2015년 설립된 넥서스비는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전지·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ALD 장비를 개발하며, 연구용부터 양산용까지 자체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ALD 기술은 미세공정 고도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넥서스비는 국내외 80여 개 연구기관에 장비를 공급하며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장비업체와의 차세대 클러스터형 장비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며, 성공 시 2028년부터 양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실리콘 커패시터 분야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힌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약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가 육성한 우주항공 딥테크 스타트업 '스펙스(대표 윤성철·정웅섭)'가 프리A 라운드에서 총 3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이앤벤처파트너스, 제이엑스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스펙스는 빛의 파장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초분광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기업이다. 이 기술은 관측 데이터의 취득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고도화할 수 있어 우주항공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주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펙스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처음 발굴된 이후, 제주센터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공동 운영하는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으로 선정되며 초기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제주센터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TIPS)'에 선정,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여왔다. 제주센터는 이번 사례가 지역 창업지원기관이 기술 중심 기업의 사업화와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병선 제주센터 대표이사는 "스펙스는 창업 초기 발굴부터 후속 투자까지 단계별 성장을 이뤄낸 제주형 딥테크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을 발굴해 지역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주간 체크 포인트

**모두의창업 1기 출범...창업 레이스 시작**=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개막했다. 12.6:1에 이르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5,000명은 전문 멘토링, 창업 활동 자금, 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1기에 선발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향후 아이디어 보완 시 모두의 창업 2기 선정 평가에서 가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7월 초 공고될 2기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26년 6월 15-19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레오스페이스	우주 광학	80억원	시리즈A	에이벤처스, IBK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디캠프, 코메스
디플리	산업용 음향 AI 솔루션	25억원	시리즈A	데브시스템즈벤처스,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센티널답액티브	금융투자 AI	11억3000만원	기타(비공개)	현대차증권
로커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30억원	기타(비공개)	IBK증권, DS투자증권,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지앤티벤처투자, 교보증권
블룸즈베리랩	홈시네마 스크린 제조	13억원	시리즈A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스캐터랩	AI 캐릭터 채팅 애플리케이션	500억원	시리즈D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SBVA, 미래셋벤처투자
비이아이	리튬메탈 배터리	300억원	시리즈B	스톤브릿지벤처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금호석유화학
피알지에스앤티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200억원	프리IPO	에스벤처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비애헤이벤처투자
큐엠아이티	스포츠테크	40억원	프리시리즈B	스톤브릿지벤처스, 네이버 D2SF
디피니트	제조 AI 플랫폼	비공개	프리시리즈A	더이노베이터스
에이트스튜디오	보행분석 AI 헬스케어	비공개	프리시리즈A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인바디, 동문파트너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고스마바이오사이언스	AI 현장진단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업루트와이	탄소감축 솔루션	비공개	시드	엔유엑셀러레이터
				프리미어파트너스, BSK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

에프엔씨티바이오텍	백신 항체 기반 섬유화 신약	211억원	시리즈B	인베스트먼트, IBK캐피탈, 아주IB투자,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협은행, 오엔벤처투자, 슬리더스인베스트먼트,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스파크랩에쿼티스, 엔블록인베스트먼트
체카	중고차 상품화 유통 플랫폼	비공개	시리즈C	
더에스엠씨	브랜드미디어	200억원	프리IPO	LB인베스트먼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국콜마
넥서스비	원자층 박막증착(ALD) 장비	150억원	시리즈C	안다아시아벤처스, 신영증권, 티인베스트먼트, 플래티넘기술투자,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리셀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제조	45억원	시리즈A	광주연합기술지주,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제주소금	기능성 미네랄 원료	비공개	기타(비공개)	DRB동일
셀렉티카	하이퍼로컬 공동구매	비공개	시드	젠엑시스
하이케이엠	반도체 인라인SEM솔루션	비공개	시드	젠엑시스
엠바스	BaaS 기반 AI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에어스메디컬	의료 AI	비공개	기타(비공개)	TA 어소시에이츠
레드브릭하우스	인디 게임 퍼블리싱	비공개	기타(비공개)	네오위즈
플라이어	전자파 차폐 소재 방산	비공개	기타(비공개)	SP삼화
스펙스	우주항공	30억원	프리시리즈A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이앤벤처파트너스, 제이엑스파트너스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http://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mailto: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